

있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 다만 죽음의 창백한 보랏빛이 부끄럼을 타던 장밋빛 뺨에 스며 있었네. 한쪽 손은 옷 위에 올려져있었고, 심장에 갖다 댄 다른 한 쪽 손은, 주먹을 꼭 쥔 상태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 나는 그 안에 있던 작은 상자를 간신히 꺼냈는데, 설마하니 그것이 그녀가 살아 있는 한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성 바오로의 초상화라는 것을 봤을 때 내 어찌나 놀랐는지! 이 가여운 소녀의 지조와 사랑을 뜻하는 그 마지막 징표에, 나는 통탄하며 눈물을 흘렸다네. 도맹그는 제 가슴을 치면서, 뼈아픈 고통을 울부짖으며 허공에 고함을 질러댔어. 우리는 비르지니의 시신을 어부들의 오두막으로 옮겨, 가련한 말라바르인 여인들에게 보살펴 달라 맡겼고, 그녀들은 시신을 정성껏 씻겨주었다네.

그녀들이 이 애통한 뒤통수에 전념하는 동안, 우리는 몸을 휘청이며 농가로 올라갔네. 라 투르 부인과 마르그리트가 배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며 기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 라 투르 부인은 날 보자마자 외쳤다.

“내 딸, 내 사랑하는 딸은요, 우리 아이는 어디 있나요?”

내가 침묵에 잠겨 눈물을 흘리자, 비르지니에게 화가 났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는, 갑작스런 호흡곤란과 괴로운 불안 증세에 사로잡혔네. 목에서는 탄식과 오열밖에 나오지 않았지. 마르그리트도 소리쳤다.

“내 아들은 어디 있죠? 우리 아들이 보이지 않아요.”